

농식품부 -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인프라
- 소관부처/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1 사업 주요내용

- ☐ (사업 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 (사업 내용) 농촌일손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 지원
- ☐ (예산/재원) 5,300백만원('21년) / 농특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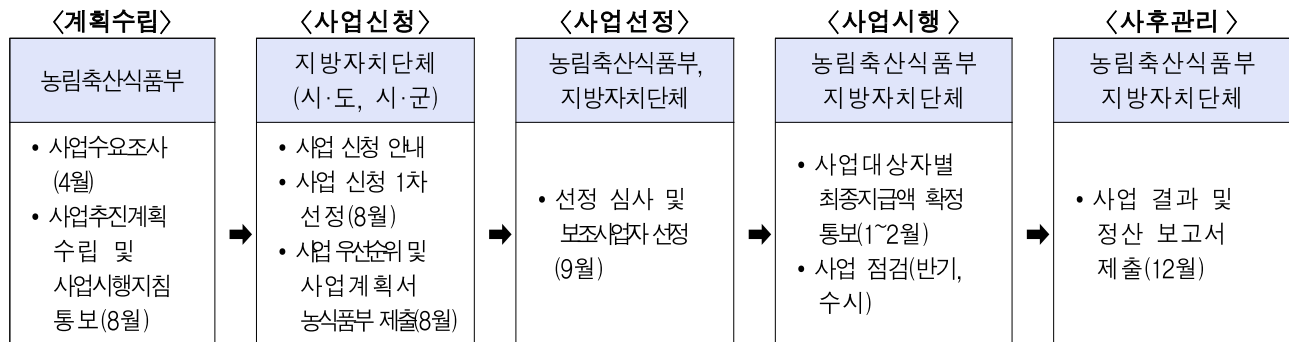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2,960	-	3,884 (100)	5,300	2,340	79.1

- ☐ (추진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주요 지원대상) 농업인, 구직자

□ 전달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95개 시군 130개소)



□ 전년대비 주요 개편사항

- 사업 시행기관을 농협에서 지자체*로 변경하여 다양한 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 도모

* 보조사업자: 지자체(시·군), 농협, 농어업회의소, 생산자 단체 등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2020년 참여자는 총 34,485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2.6%, 인프라 유형 전체 참여자의 46.9%

- (성별) 본 사업 참여자 중 남성은 14.4%(4,963명), 여성은 85.4%(29,452명)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

- (연령별) 본 사업의 참여자 중 고령이 50.4%(17,375명)로 가장 많고, 장년 33.4%(11,514명), 중년 13.8%(4,761명), 청년 2.0%(705명) 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인프라 전체	73,482 (100)	21,397 (29.1)	52,015 (70.8)	39,600 (53.9)	4,857 (6.6)	11,520 (15.7)	17,375 (23.6)
농촌고용인력 지원	34,485 (100)	4,963 (14.4)	29,452 (85.4)	705 (2.0)	4,761 (13.8)	11,514 (33.4)	17,375 (50.4)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만족도 조사)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고용서비스 전체	4.12	4.10	4.19	4.29	4.15	4.08	4.16	4.26	4.16	4.02
인프라 전체	4.29	4.34	4.19	4.46	4.09	3.97	4.08	4.33	4.39	4.23
농촌고용인력지원	4.29	4.34	4.19	4.46	4.09	3.97	4.08	4.33	4.39	4.23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가인구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어 농촌 인력 부족.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

* 농가인구: 2,569천명(2015), 2,496(2016), 2,422(2017), 2,315(2018), 2,245(2019)

*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21.7%(2000), 31.7%(2010), 42.5%(2017), 44.7(2018), 46.6%(2019)

- 특히,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농번기 4~6월, 수확기 8~10월)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 있음. 특히 봄철 농번기가 연간 고용 인력수요의 약 40%인 것으로 추정되어 지원 필요
- (일자리사업성과) 정부지원 농촌인력지원센터 2019년 50개, 2020년 92개(42개 증설)로 증가하였음
 - *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중개실적: 246천 건(2019) → 374천 건(2020)으로 증가
- 또한 온라인 도농인력중개시스템을 마련, 온라인으로 도시구직자들과 일손이 부족한 구인농가를 연계시키고 있음(2020년 시작)
 - * 도농인력중개시스템 운영현황(2020.12월말) 모집인원 연 4,149명, 구직신청 연 974건(439명), 매칭인원 연 117명
-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도시구직자에 대한 취업소양교육 등을 통해 도농인력중개 인력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농식품부는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 * 도시형인력중개센터 모집인원 763명 (2020.12월말), 농작업 참여인원 160명
- (운영의 적절성)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목표를 추가하여 설치
- (제도개선노력) 운영상의 형평성이 문제로 제시되어 사업수행기관을 '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운영 중
 - *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중개실적은 증가하였지만 도시구직자를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도시구직자의 농작업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여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모집선발 이후 농작업교육을 실시하고 매칭을 추진하는 방식을 시작
- 아울러 국회 등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일원화하고 도시 구직자의 단기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여, 2021년부터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일원화하고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